



6월 11일 천안 구룡사에서 봉행된 <법화경> 사경 봉안대회에서 불자들이 <법화경>을 머리에 이고 '석가모니' 염불하고 있다.

경전을 쓰기만 해도 부처

“3만여 법화행자들이 <법화경> 전법의 수레가 되고 대들보가 되고 서까래가 되겠습니다. <법화경> 사경으로 성불의 연꽃이 활짝 피게 하고, 청정한 원력 법사들이 계속 출현하도록 발원하겠습니다.”

1만 여 <법화경> 사경 행자가 발원문을 낭독했다. 정성스럽게 합장을 하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이였다.

6월 11일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회주 도림)에 1만여 불자가 운집했다. <법화경> 사경 봉안대법회가 열린 이날 구룡사 경내는 이른 새벽부터 불자들의 기도가 시작됐다. 충남 천안시 백자리 깊은 산속에 위치한 구룡사 진입로는 차량 정체를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와 경찰의 도움이 있어야 겨우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었다.

구룡사 도량은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에 300만 명이 모여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이루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듯했다. 법당은 이른 새벽부터 불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불자들은 경내 곳곳이 법당인 듯 자리를 잡고 앉아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문을 듣고 공양도 했다.

사경 봉안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칠야정진으로 이어졌다. 오전은 부산 광명사 주지 도실 스님의 법어와 도림 스님의 포살 법회로 1부가 진행됐다. 점심 공양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불자가수들의 <법화경> 예찬 음성공양과 한미사 회주 도철 스님의 법어가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무더운 날씨에 진행된 긴 법회에도 법화행자들은 지칠 줄 몰랐다.

오후 4시 구룡사 회주 도림 스님의 인례에 따라 불자들은 사경한 <법화경>을 머리에 이고 '석가모니'를 염불하며 도량을 돌았다. 일부 법화행자 중에는 우편으로 사경 노트를 보내 탐에 봉안한 이들도 많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내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사경 노트를 머리에 이고 수행공덕을 나눴다.

<법화경> 사경 봉안은 도림 스님이 20여 년 전부터 광복절을 전후해 진행해왔다. <법화경>의 공덕을 알리고 경전보급을 하면서 지금까지 법화행자로 인연을 맺은 불자만도 전 세계에 200만여 명이 된다.

원만행(64·원주) 보살은 건강을 잃어 평소 사찰에서 하던 봉사활동에도 동참하지 못해 힘들어 했다. 봉사할 하면서 만난 스님으로부터 사경 수행을 권유 받아 그날부터

<법화경> 사경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해왔다. 원만행 보살은 “처음 뜻도 몰랐지만 나날이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경본 여덟권을 써서 봉안했고 지금 아홉권 째 쓰고 있다는 원만행 보살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얻으면서 이웃에게 사경 포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원만행 보살은 “메사가 즐겁고 편안하고 감사해 눈물이 난다”며 말했다.

원만행 보살의 권유로 사경을 하게 된 노수옥(56·원주) 씨는 “긴 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자녀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사경이 마음에 위로가 된다”며 또 한 명의 직장 동료에게 사경수행의 길을 안내했다.

이상언 기자

사경수행, 불교와 함께 전파됐다

우리나라의 불경은 모두 사경을 기초로 해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경문화는 유구한 전통 속에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초기 불경은 사경을 기초로 유포됐고 이후 수요에 따라 목판 대장경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 불경을 제작하는 재료로는 종이, 대나무, 돌, 철 등으로 빚어서 불경을 만들거나 금속에 새긴 금판경이 유행했다. 목판 대장경 사업은 사경의 매체로서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불경을 필사하는 사경 전통은 불도들의 정성과 신앙심에 힘입어 불교전래 초기부터 전파됐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던 4세기 후반 태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순도(順道)를 고구려에 파견하면서 불상과 경문을 보낸 기록이 있다. 당시 불교의 전파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필사 돼 보급하게 됐는데 이때 이뤄진 사경이 우리나라 사경 수행의 첫 시작이 됐다.

사경공덕은 경전에서도 강조해



왔다. <금강경>에는 “7가지 보배로 갠지스 강의 모래 수만큼 많은 칠보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구계를 서사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사경하거나 지니고 독송하는 공덕이 경전에 강조돼 있어 시대를 이어 불자들 사이에 유행이 됐다.

고려시대 사경은 고려미술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도 섬세하며 온갖 호사를 다했다. 내용면에서나 물량면에서도 신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식이 변화했고 내용도 다양해진다.

고려에서는 국가기관으로 사경원(寫經院)을 설치하기도 했다. 불교를 개국기념으로 삼았던 고려 초

기의 불교활동이 보다 순수한 불교 신앙을 뒷받침 해 전개됐다면 고려 후기 불교는 외세의 입김아래 형성된 문화현상의 측면도 강하다.

조선시대 사경은 고려와 형식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교사회에서 불교의 위축으로 사경 제작에 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과거의 전통은 이어가지는 못했다.

조선시대에는 개인 발원의 사경보다는 사찰을 중심으로 판경의 제작이 성행했다. <법화경>과 같은 대승 경전을 개인의 동참을 통해 전개 했으므로 고려시대의 국가 불교적 상황과는 다르다.

유교사회라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불교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았고, 그 자구책으로 효(孝)에 대한 자구책을 찾았다. 이런 가치관은 불경조성에 있어 <부모은중경>과 같은 불경이 대두됐으며 당시 법화신행이 유행과 함께 <법화경>간행이 가장 보편적으로 성행하게 된다.

참고 <한국사경 연구> (동국대 출판부)

언제 어디서고 할 수 있는 '사경'

사경(寫經)은 경전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불교 수행 중 가장 일찍 형성된 수행법이다. 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과 종이에 옮겨 넣는 신앙행위이자 수행이다. 내면에 치중하는 여타 수행과 달리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아우르는 수행법이다. 타력적 신앙이 아니라 자력 수행으로 범신사리를 조성하는 행위다.

사경수행을 할 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신라시대 유일한 육필(肉筆)사경인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에는 사경의 제작과정이 남아있는데 사경을 할 때 어떠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종의 원로가 되는 님나무는 뿌리에 향수를 주어 기르듯 제작과정은 분업으로 진행된다. 관여자는 모두 보살계를 수지해야 하고 음식을 절제해 가려 먹어야 하며, 잡자거나 식사하거나 부정한 곳에 출입한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향수로 목욕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 향과 꽃과 법패로써 공양을 올려 의식을

집행한다.” 이처럼 사경수행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 결집이 없는 비움의 상태가 돼야 한다. 사경 수행에는 펜슬씨와 같은 경필사경과 붓글씨와 같은 경필사경과 붓글씨와 같은 경필사경이 있으나 붓 끝에 마음을 집중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고 인내력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경역시 수행이기에 마음가짐이 중요할 뿐 글씨의 미추는 문제 되지 않는다.

사경 수행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도 가능하다. 사경 수행을 할 때 그 뜻을 모르면 베껴 쓰는 수고로움을 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정성을 다해 서사하는 과정에서 그 뜻은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을 잘 기억해 뒀다가 사경 수행을 마친 후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내용을 곱씹다 보면 그 뜻이 밝혀 질 때가 있다. 따라서 사경수행은 이러한 반복과 심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경을 할 때에도 기초수행이 필

요하다. 자극적인 음식과 유흥을 피하고 과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수면의 조절이 필요하며 평소 몸을 절제하고 지병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호흡도 가늘면서도 고요하고 깊고 고르게 해 마음이 안정되고 장시간 집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마음을 조복 받는 기초 수행이 필요하다.

사경은 가장 값진 법사리다. 따라서 사경본의 보존은 법사리 신앙과 연결된다. 경전에는 법사리를 여법하게 장엄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일은 죄가 된다고 설하고 있다. 사경을 여법하게 수지(受持)하는 일 또한 수행으로 사경수행을 하기 전 미리 깨끗한 보자기나 청정한 경함을 마련해 날짜를 쓴 후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두면 부처님의 법력이 깃들어 가정과 이웃에게 맑은 기운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비롯한 만물을 변화시킨다고 전해진다. 가정에서는 가장 청정한 장소에 법단을 만들어 봉안하고 인연이 닿으면 탑이나 불상의 복장에 봉안한다.

참고 <수행문답> (운주사)

“사경 수행이 운명을 바꾼다”

천안 구룡사 회주 도림 스님(사진) <법화경> 읽고 쓰기를 열심히 하면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시대의 운명이 바뀌고, 국운이 청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자손손 뜻과 같이 잘 됩니다. 육신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나 모든 업장이 소멸되면

서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화경> 사경 수행의 공덕은 큰 힘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주도에 불사리탑을 세우면서 병고로 쓰러지면서 매일 저녁 <법화경>을 3시간 동안 사

경했습니다. 한 자 한 자 쓰고 또 쓰기를 16년동안 했더니 육신과 정신의 병 모두 완전히 나왔습니다. 사경 수행의 공덕으로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16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프고 괴롭고 기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희노애락 속에서 어디든지 <법화경>을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 여러분 모두가 분명 성불을 하게 됩니다.



이상언 기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츰컬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한국

(중)

■ 삼베 멍석 카페트 (중)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식 시트로 최적!

◇ 용도(공용): 요거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대)

■ 삼베 멍석 카페트 (대)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크기: 가로 280 ×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